

‘될성 부른 떡잎’ 키운다...남원시, SW 미래인재 양성 ‘박차’

디지털리더스클럽 모집·국내 최초 ‘아두이노 에듀케이션’ 운영 SW미래채움센터 구축...SW·AI 챌린지대회·해커톤 대회 등 다양

남원시가 소프트웨어 미래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원시는 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SW)분야 엘리트 교육을 진행하는 ‘디지털리더스클럽’ 참여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학교장 추천을 받아 5월8일까지 모집하며 고등학생과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SW개발자 양성과정’은 오는 6월부터 모집해 양성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인 ‘2023년 SW미래채움사업’에 선정된 후 이를 기반으로 SW 미래인재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전문강사 43명을 양성했고 초·중등학생 4961명을 대상으로 SW교육을 진행했다. 또 SW 미래채움 창작페스티벌, SW·AI 챌린지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SW저변 확대와 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했다.

시는 올해부터 SW미래채움사업을 투트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는 과기부 기준 과업에 해당하는 ▲SW미래채움 센터 구축 및 운영 ▲SW전문강사 양성 및

채용(90명) ▲찾아가는 초·중등 SW교육운영(6000명) 등을 추진한다. 특히 오는 7월 문을 여는 ‘전북 SW미래채움센터’의 개소식주년을 통해 지역 특화 프로그램인 SW·AI 챌린지대회, SW미래채움 전문가 특강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해 놨다.

SW전문강사는 지난 3월부터 교육생 99명이 접수해 63명이 최종 서류 합격했고 이들은 전북SW미래채움입시센터와 전주시 소재 교육장에서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을 받고 있다. 이어 찾아가는 초·중등 SW교육에도 6792명 신청해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했다.

두 번째는 미래인재 양성과 SW문화 확산에 더욱 힘쓴 ‘SW미래채움 지역특화프로그램’으로 ▲디지털리더스클럽운영 ▲청년SW개발자 양성 ▲SW·AI 챌린지대회 및 전문가 특강 ▲SW미래채움 창작페스티벌 및 전국 드론메이커스대회 ▲SW미래채움 청소년토크콘서트 개최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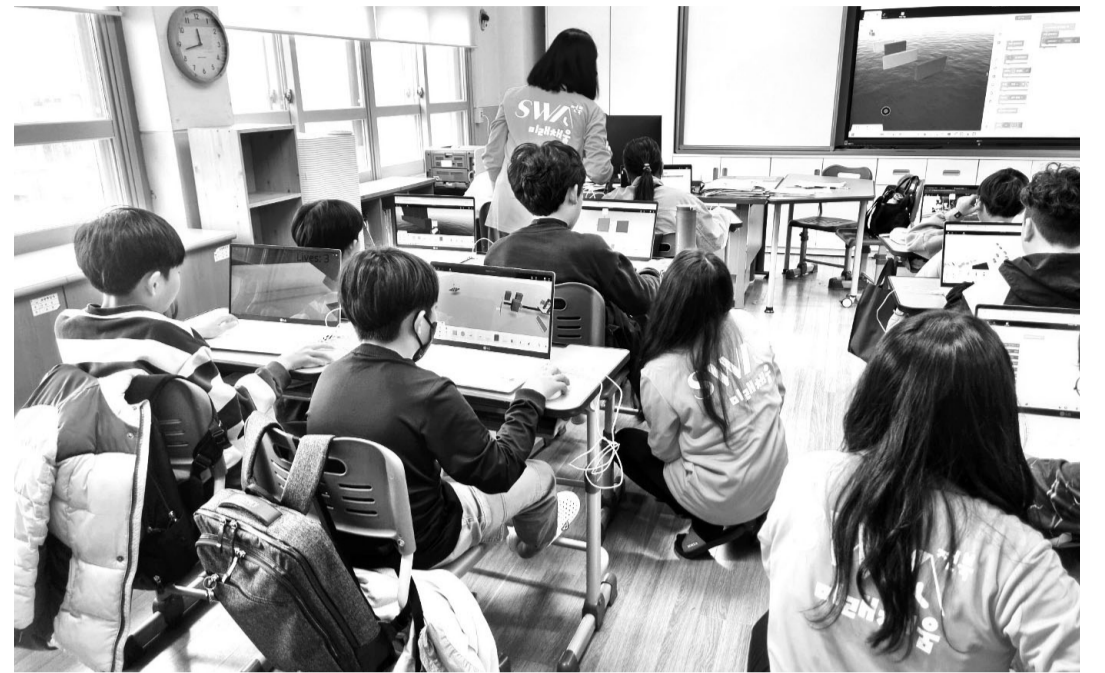
5월8일까지 모집하는 ‘디지털리더스클럽’은 SW 개발에 소질이 흥미가 있는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SW/IT 분야 엘리트 교육을 진행하는 지역특화

프로그램이다. 국내 최초 ‘아두이노 에듀케이션’ 국제 공식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자격증 취득을 지원한다. 이어 6축 로봇, 가상현실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HMD)를 활용한 교육도 진행한다. 나아가 인공지능 전문기업인 ‘아마존’ 탐방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비대면 경진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거쳐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오는 6월부터는 SW개발에 관심이 있는 고등학생과 미취업 청년들을 모집해 ‘청년 SW개발자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취·창업이 가능하도록 단계별·실전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군집비행이나 자율비행 드론과 같은 기술기반 역량 강화에 집중하며 교육지원금도 지급해 교육비에 대한 부담도 완화한다. 해당 과정을 수료한 청년들은 AI 기술, 피지컬 컴퓨팅, 로봇 융합 주제 ‘남원DNA해커톤’ 대회도 출전한다.

SW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도 준비 중이다. 앞서 ‘전북 SW미래채움센터’ 개소식, SW·AI 챌린지대회, SW미래채움 전문가 특강뿐만 아니라 10월에는 ‘2024 남원 세계드론제전’과 연계한 행사로 2회차를 맞는 ‘전북SW미래채움 창작페스티벌’이 열린다.

이와 함께 드론교육을 진행하는 다른 지역 SW미래채움센터와 공동으로 군집비행을 주제로 한 ‘드론메이커스대회’를 개최한다. 연말에는 유명 인



지난해 남원시의 ‘찾아가는 초·중등 SW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전문강사의 도움을 받으며 수업을 진행 중이다. <남원시 제공>

플루언서를 초대해 ‘SW미래채움 청소년 토크콘서트’도 열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SW미래채움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의 SW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청소년

들이 미래인재로 성장해 SW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지역경제와 미래세대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군 훈습영농조합법인 ‘가루쌀 우수 생산단지’ 대상

체계적 관리·재배 매뉴얼 준수...공공비축 특등 비율 38% 성과

고창군 부안면 훈습영농조합법인(대표 김재국)이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열린 ‘제1회 가루쌀 우수 생산단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회 가루쌀 우수 생산단지 경진대회를 열고, 고품질 가루쌀 생산과 쌀 수급 안정에 기여한 우수 생산단지 5개소를 선발했다.

전국의 가루쌀 생산단지 38개소 중 지자체에서 추천한 10개 생산단지가 경합을 벌여 훈습영농조

합법인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훈습영농조합법인’은 주요 농작업별 공동경영 일지를 상세히 작성해 참여 농가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인 자체 공동 농작업단을 구성·운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재배 매뉴얼을 준수하고 공동방제 등에 노력해 2023년 공공비축 수매 시 특등 비율이 38%로 전체 평균인 23.2%에 비해 14.8%가 높아 농가소

득 향상 부문에서도 큰 성과를 거뒀다.

김재국 대표는 “가루쌀 첫 재배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어 기쁘다”며 “올해에는 2배 면적인 100ha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고창 가루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대상이라는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지속해서 가루쌀 육성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정읍 샘골하모니 합창단, 한국가요촌 ‘달하’서 창단공연

샘골하모니 합창단(대표 김택중) 창단공연이 지난 20일 오후 4시30분 한국가요촌 ‘달하’에서 가족과 함께 사월의 노래를 주제로 열렸다.

이날 공연에서는 ‘남촌’과 ‘과수원길’을 합창했으며, 여성중창단은 ‘바위섬’과 ‘바람’ 등을 열었다.

<사진>

이번 창단한 샘골하모니 합창단은 남여 단원 5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익산동야 아메이징 합창단 지휘자인 차주중씨가 지휘를 맡게됐다.

합창단 창단에는 김희선 (주)아이투엘 회장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었다. 합창단은 오는 5월 5·18 기념식 식전행사에 참가할 예정이며, 하토야마 일본 총리의 군산3·5운동 사과발원 행사에도 참여



해 공연할 계획이다.

김희선 아이투엘 회장은 “도도히 흐르는 세월의 뒤 안길에서 천년역사의 한이 서린 백제어인상을

기리는 이곳 한국가요촌 달하에서 뜻깊은 공연을 갖게 되어 기쁘다”고 창단 공연 소감을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동학농민혁명 대상,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정읍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공로

정읍시가 제정·수상하는 동학농민혁명 대상에 이만열(사진) 전 국사편찬위원장이 선정됐다.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제14회 동학농민혁명대상 수상자로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장을 역임하고 숙명여대 한국사학과 교수로 30년 이상 재직하며 대한민국 역사학계의 대표적인 석학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활동을 통해 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고,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동학농민혁명

의 세계사적 가치를 높이고, 이를 인류가 함께 기억하고 보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제14회 동학농민혁명대상 시상식은 5월 11일 개최되는 제57회 동학농민혁명 기념제 기념식에서 진행되며, 상패와 상금 2000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의 동학농민혁명대상 수상은 동학농민혁명을 세계사적 혁명으로 위상을 높인 공적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전국 200개 캠핑팀 참가 ‘고창별밤 그린캠프’ 성료

고창군이 고창문화관광재단과 함께한 캠핑축제 ‘2024 고창별밤 그린캠프’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북분자클러스터유원지에서는 전국단위 캠핑관광객 200팀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캠핑축제 ‘2024 고창별밤 그린캠프’가 열렸다.

그린캠프에서는 ▲전통 연날리기 ▲가족 축구

다트 ▲고창별밤 그린파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호응을 얻었다. 특히 장소가 북분자클러스터유원지였다는 점에 호응이 높았다.

‘농촌관광 스타마을 조성사업’ 대상지로 고창 특산물 북분자를 활용한 와인 테마의 다양한 와인체험시설과 지역특산물 판매장, 와인전시·프로그램 등이 운영되는 곳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